

우리나라 해저지명의 특성 분석과 표준화에 관한 연구

-해저지명 명명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in Korea

임영태* · 최윤수** · 윤하수***

Young Tae Lim · Yun Soo Choi · Ha Su Yoon

요약 해양지명표준화편람에서는 해양지명을 해상지명과 해저지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만조시(약최고고조면상) 바닷물에 잠기는 여(礮), 서(巖), 암(岩) 등의 간출암은 해상지명으로 분류하고, 만조시 항상 노출되는 경우는 육상지명으로 분류하여 육지의 개념으로 해양지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였다. 해저지명(undersea features names)은 수면하 바닷물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해면 아래의 지형에 대한 명칭으로 IHO/IOC Gazetteer에 수록된 해저지명의 분류는 53개이나 11개 분류는 우리나라 해저지형과 무관하다하여 초, 퇴, 협곡, 분지, 해산 등 42개로 분류하였다.

42개의 해저지명의 속성 중 초(礁)와 퇴(堆), 모래톱(shoal)을 제외하고는 대개 깊은 바닷속에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연안의 바닷가에 존재하는 선박의 항해 장애물인 암(岩), 초(礁), 퇴(堆)등 해저지명에 대하여 속성지명을 어떻게 분류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해양지명의 속성분류와 현재의 속성 분류를 비교하고, 조사·분석을 통하여 향후 해양지명의 표준화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해양지명표준화편람, 속성분류, 암(岩), 초(礁), 퇴(堆), 표준화방안.

Abstract The guideline for standardization of Marine geographic names distinguished Marine geographic names as sea surface names and undersea features names. It cannot be handled as the concept of the land by Marine geographic name committee that the rocks(간출암) are classified as sea surface names including Yeo (礮), Seo(巖), and Am(岩) that are submerged under water, and in case when exposed at high tide will be classified as Geographical name. Undersea features name is the one that exists under the sea and is the designation of undersea feature which was classified into 42 different names, such as Cho, Bank, Canyon, Basin, Sea mount and etc, as 11 categories out of 53 categories those IHO/IOC Gazetteer contained are irrelevant to the Korean undersea features names.

Most of 42 undersea features names usually exist under the deep ocean except Cho(礁) and Bank(堆), Shoal. In this study we did the case study about the use of the undersea features names and their categorizations like Am(岩), Cho(礁), and Bank(堆), which are the navigating vessel's obstacles existing under the deep ocean and closely relevant to human life. After that we classified the past and current undersea features names' categorizations, and proposed the method for the standardization of Marine geographic names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Key words The Guideline for standardization of Marine geographic names, Classification attributes, rocks, reefs, banks, Marine geographic names standardization

1. 서론

해양지명표준화편람은 해양지명을 해상지명과 해저

지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만조시(약최고고조면상) 바닷물에 잠기는 여(礮) 등의 간출암은 해상지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만조시에도 항상 노출되는 경우는 육

* 한국해양조사협회 연구위원 lims5787@krpost.net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choiys@uos.ac.kr(교신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박사수료 hasu9@uos.ac.kr

상지명으로 분류하여 육지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해양 지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였다. 해저지명(undersea features names)은 수면 하 바닷물 속에 존재하는 지형에 대한 명칭으로 IHO/ IOC Gazetteer에 수록된 해저지명의 분류는 53개이나 우리나라 해저지형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11개 분류를 제외한 초, 퇴, 협곡, 분지, 해산 등 42개로 분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저지명은 초(礁), 퇴(堆)와 탄(灘), 퇴(瀨), 암(岩), 천퇴(淺堆), 주(洲) 등이나 육상지명으로 분류하고 있는 서(嶼), 여(礮, 汝) 등 일부 속성지명은 해석을 잘못하여 해저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礮, 汝) 탄(灘), 퇴(瀨)의 속성지명은 해저지명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나 실제 항해용 해도와 항해 관련 문헌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지명들은 해저지명과 해상지명의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해도와 항로지) 등 항해관련 문헌에 사용되고 있는 해저지명에 대한 사례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해저지명의 속성이 올바르게 해석되었는지, 적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용어 해석을 잘못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 등을 토대로 해저지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해저지명의 표준화에 관한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2. 해저지명의 정의

해저지명의 형상과 지형의 범위는 국제수로기구 산하 IHO-IOC(IHO - IOC : IHO 국제수로기구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OC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에서 간행한 해저지명의 표준화 지침서인 해저지형관련서지에서, 해저지명의 용어와 정의를 과학적인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양지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IHO의 권유에 따라 2002년 당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지명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부터 라고 할 수 있다. ‘해양지명’의 정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7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저지명에 관한 정의는 2004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한 해양지명표준화 편람에서 해양지명을 해상지명과 해저지명으로 분류하였고 해저지명은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초, 퇴, 해저협곡 등 물속의 지형에 관한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우리나라 해저지명의 속성분류

우리나라 해양지명위원회에서 간행한 해양지명표준화 편람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저지명의 분류는 이미 우리나라 해양지명 표준화에 관한 연구(임영태 등, 2011)에서 언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도와 항행관련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해저지명의 속성지명을 사례별로 근원과 분류체계의 내용을 분석하고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해양지명의 속성은 조선수로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연안에 대하여 수심, 위험물 등을 조사 측량하여 최초로 간행한 『환영수로지(1886년, 明治 19년)』의 “일본해군수로국해도식”에는 Fig. 1과 같이 당시의 항해술에 맞는 육안으로 항해하는 視界航海에 적합한 육지의 지형지물에 관한 사항과 위험한계선으로 둘러싸인 항해장애물에 대한 사항을 도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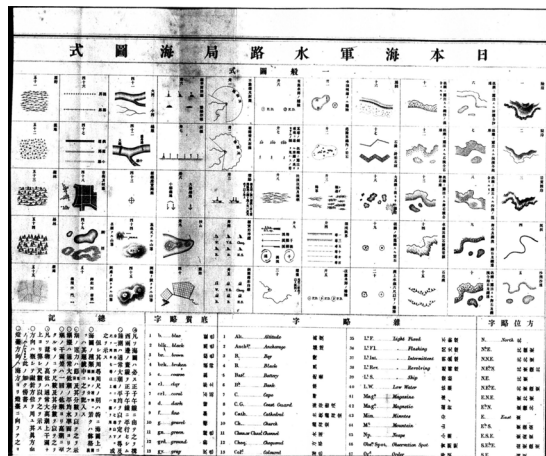


Figure 1. Japan Hydrographic Office Chart Symbols (1866).

일본은 1880년 3월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환영수로지(實瀛水路誌)』의 편찬을 시작하여, 1889년 3월수로지 편찬을 중단하였다. 이후 일본 영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본수로지』로 독립시켜 1892년부터 현재까지 차례로 간행하고 있다. 1894년 다시 일본은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등 국가 영토별로 분류하여 편찬하기 시작하였다.(출처 : 울릉군 디지털 울릉문화대전) 1917년에는 다시 일본수로지로 명칭을 바꾸어 간행하다가 1922년 일본수로지 제10권중 제4편과 5편을 조선서안에 관한 기사로 개편하고 1930년 이후부터는 일본수로지10권 상편을 조선연안수로지 제1권으로, 제10권 하편을 조선수로지 2권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 항로지(Sailing Direction) : 항해를 위한 바다의 항로 안내지로서 해양의 현상, 연안 및 항만의 지형, 시설 등 해도에 표기되지 않은 여러 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한 서적이다. (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간행하였다.

1907년 조선수로지 제2 개판에서는 해저지명의 속성을 Table 1과 같이 분류하였으며, 1920년 간행 조선수로지는 Table 2와 같이 분류하였다.

Table 1과 Table 2를 비교 분석하면 Table 1의 경우 바닷물에 씻기는 세암(洗岩)의 경우 Awash rock으로 표현하였으나 Table 2는 Rock awash로 표시하였다.

이 시기의 항해는 전술 한 바와 같이 시계(視界)에 의한 항해이었으므로 초(礁)와 암(岩)을 구분하려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로지 본문의 표현에는 초(礁)와 암(岩)의 구별이 모호하게 표현되어있다.

항해 장애물인 초(礁)의 경우 초(礁)와 암암(暗岩), 암초(暗礁)로 표시하고 있으며 저질(底質)²⁾이 암(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암초(岩礁)로 표시하였다.

퇴(灘)는 수심이 얇은 지역에서 천퇴(淺灘)로 표시하고 있으며, Table 2에서는 보초(堡礁, Barrier reef), 환초(環礁, Atoll)등 저질(底質)과 관련된 속성분류를 표시하였다.

보초(堡礁, Barrier reef), 환초(環礁, Atoll) 등 저질(底質)과 관련된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해저의 지형을 파악하여 암질(岩質)의 해저 지형과 구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영어 분류 Head는 1907년에는 두(頭)로 분류하였으나 1920년 조선수로지 분류에서는 정(頂)으로 분류하여 표고를 표시하는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Table 1. The List of Attributes in Coast of Korea Pilot published in 1907

한글 표기	한문 표기	영어 표기
초, 퇴, 초맥	礁, 灘, 礁脈	Reef
암	岩	Rock
세암	洗岩	Awash rock
침암, 암암	沈岩, 暗岩	Sunken rock
험초, 암험암	險礁, 暗險岩	Dangers, Dangerous rock
고조암	高潮岩	High water rock
반조암	半潮岩	Harf tide rock
고립암	孤立岩	Detached rock
파혼암	波痕岩	Breakers
일점탄	一點灘	patch
퇴	堆	bank
탄, 천탄, 천퇴	灘, 淺灘, 淺灘	Shoal
간출	干出	To dry
두	頭	Head

출처 : Coast of Korea Pilot(1907, Japan Hydrographic Office)

2) 호수, 바다, 늪, 강 따위의 바닥을 이루고 있는 물질

Table 2. The List of Attributes in Coast of Korea Pilot published in 1920

한글 표기	한문 표기	영어 표기
초, 퇴, 초맥	礁, 灘, 礁脈	Reef
암	岩	Rock
세암	洗岩	Rock awash
침암, 암암	沈岩, 暗岩	Sunken rock
험초, 암험암	險礁, 暗險岩	Dangers Dangerous rock
고조암	高潮岩	High water rock
반조암	半潮岩	Harf tide rock
수상암, 로암	水上岩, 露岩	High water rovk
고립암	孤立岩	Detached rock
파혼암	波痕岩	Breakers
점탄	點灘	Patch
퇴	堆	Bank
탄, 천탄, 천퇴	灘, 淺灘, 淺灘	Shoal
보초	堡礁	Barrier reef
환초	環礁	Atoll
정	頂	Head

출처 : Coast of Korea Pilot(1920, Japan Hydrographic Office)

4. 해저지명 속성 분석

1907년 간행된 조선수로지와 1920년 간행 조선수로지에서 해저지명의 사용상 사례를 분석하면 수면하의 항해장애물에 대해서는 초(礁), 초맥(礁脈), 암암(暗岩), 암초(暗礁), 암초(岩礁)로 분류하였으며 간출(干出)은 수면위에 노출되는 부분의 저질을 육안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며 대개 암(岩)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시계항해(視界航海)상 육안으로 구분하여야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과 같이 1902년부터 1952년 사이에 간행된 조선수로지에서 초(礁, reef)는 shō, yo로 사용되었으며, 육지지명으로 분류하고 있는 서(嶼)의 경우에도 nyō, sho, yo, Islet, rock, syo등으로 여러명칭이 사용되었다. 여(礮, 汝)는 rock, jo, yo 등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1952년 이후에는 초(礁), 서(嶼), 여(礮, 汝)의 속성 표현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지명표준화편람에서 연안가까이 존재하는 해저지명의 속성은 초(礁)와 퇴(堆), 모래톱이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해저지명은 초(礁), 퇴(堆)이외에 서(嶼), 여(礮, 汝) 탄(灘), 퇴(灘) 암(岩), 천퇴(淺堆), 주(洲) 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지명표준화편람에서 초(礁)와 퇴(堆)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4.1 초(礁), 퇴(堆), 모래톱

“초(礁 REEF) : 해면 또는 해면 가까이에 위치한 바위 또는 경화된 물질로 항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해

저지형. 단단한 암초, 산호 등으로 되어있는 곳으로 항해할 때 위험한 부분이다. 진흙, 모래 등 단단하지 않은 물질로 되어있는 모래톱(Shoal)과 구별된다.(출처 : 해양지명표준화 편람 74쪽).”

“퇴(堆, BANK) : 비교적 수심이 얇고(흔히 200m 이하) 평탄한 정상부를 갖는 해저용기부. 흔히 대륙붕이나 섬 부근에 특징적으로 발달하고, 모래톱(Shoal)이나 초(reef)에 비해 약간 더 깊은 해저지형이기 때문에 안전항해가 가능하다. 해안주변에 발달하는 사퇴(sand ridge)와는 구별되며 항해에 지장을 주는 천퇴(sand bar)와도 구별된다(출처 : 해양지명표준화 편람 75쪽).”

“모래톱(SHOAL) : 강이나 호소 또는 바다의 주변 바닥보다 수심이 얇은 불룩한 부분. 단단하지 않은 모래나 진흙 등이 쌓인 곳으로 항해에 위험한 지역이며,

암초나 산호 등 단단한 물질로 되어있는 초(reef)와 구별된다(출처 : 해양지명표준화 편람 66쪽).”

5.1 해저지명 사용사례 분석

해저지명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해양지명 표준화에 관한 연구”(임영태 등, 2011)에서 언급한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해도와 항로지에 사용되고 있는 해저지명의 속성지명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해양지명위원회의 표준화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지명표준화편람에서 해상지명과 해저지명을 분류하여 연안지역의 해저지명은 초(礁), 퇴(堆)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례는 서(嶼), 여(礪, 汝), 탄(灘), 퇴(瀨), 암(岩), 천퇴(淺堆), 주(洲) 등의 지명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이 지명들은 해상지명과 해저지명의 명확한 구분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1907년 조선수로지와 1920년 조선수로지 및 1952년 조선남동안 수로지에서 사용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Table 3. The Historical Changes in Marine Geographic Names

속성 지명	영어 표기	明治 35년 (1902년)	明治 40년 (1907년)	大正9년 (1920년)	昭和27년 (1952년)
항(港)	Harbor	Kō	Kō	Kō	Kō
포(浦)	Creek	ho	po	Ho	Ho
도(島)	Island	Tō, Dō, Somu	Tō,Dō, Somu	Tō, Dō, Somu, Island	Tō
서(嶼)	Islet	nyō, sho, yo	sho, yo, Islet, rock	sho, yo, rock	syo
여(礪, 汝)			rock, nyo	jo, yo	yo
암(岩)	rock	pau, Amu, gan, iwa	pau, Amu, gan,	pau, Amu, gan, rock	gan, bao
초(礁)	reef	shō, yo	shō, yo	shō, yo	shō, yo
탄(灘)			Shoal	nyo, tan	dan
퇴(瀨)		se	se	se	se
사퇴(砂堆)		satai	satai	satai	
퇴(堆)	Bank		Bank, tai	Bank, tai	tai
주(州)			su	su	su
각(角)	point	kaku	kaku, point	kaku, point	kaku,point
기(埼)		zaki, saki	zaki, saki	zaki	saki
말(末)		kutsu, matsu	zaki, saki	zaki, saki	matu
단(端)		tan	kutchi, point	kutchi, tan	tan
갑(岬)	point	point	cape, kapu kan	kapu, kutsu	Kō
곶(串)		kotsu	gotsu, kan	point, kotchi	kan

Source : Li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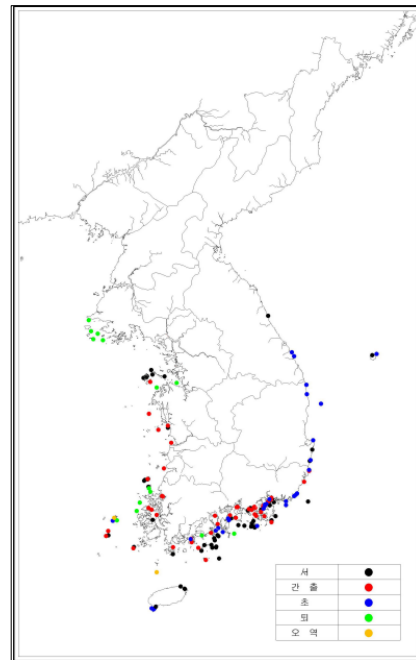


Figure 2. Distribution Map of Coastal Geographical Names in Korea(임영태, 2012)

초(礁)의 경우 동해연안에서 우세하게 출현하고 있으며, 서(嶼)는 남쪽해안에서, 퇴(堆)는 황해연안에서 우세하게 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연안지형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저지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지역별

평균해면 높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지역별 평균해면의 높이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gional Mean Sea Level (MSL:z₀)
(Unit :cm)

관측 검조소명	인천	목포	완도	통영	부산	울산	속초
높이	464	243	200	141	65	30	20

Source: 2011 Tide Table, Coast of Korea, p219~p224
Corrections and non-harmonic Constants

5.1.1 초(礁)

초(礁)는 항상 수면 하에 잠겨있는 형태를 표시하였다. 표기 방법은 해수면아래 존재하는 물체를 표기하였으며 대략적인 수심과 저질(低質)을 표시하였다. 암암(暗岩), 초맥(礁脈)으로 표기하였다. 수심은 심(尋)³⁾으로 표기하였다.

1907년 수로지에는 수심에 따라 오심계선(五尋界線 : 수심약 9m)은 위험선으로 표기하여 주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십심계선(十尋界線 : 수심 약 18m)는 경계선으로 설정하여 위험표시를 하였다. 암초(岩礁)는 대체로 수심이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에 표기하였으며, 그 외에는 대략적인 수심과 함께 암초(暗礁)로 표기하였다.

1920년 수로지부터는 수심과 함께 암초(岩礁), 암초(暗礁)의 표기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산호초인

환초(環礁), 보초(堡礁)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생긴 물질의 성상에 따라 암(岩)질의 초(礁) 라는 뜻의 암초(岩礁)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920년 간행된 수로지 이후부터는 용어예(用語例)⁴⁾를 표기하지 아니하고 수로지의 내용에 관하여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1952년부터 간행한 수로지에서는 초(礁), 암초(暗礁), 암초(岩礁)의 구분이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고 있다. Table 5는 초의 위치와 표고이다. 대표적으로 일부 사례만 표시하였다.

5.1.2 퇴(堆)

퇴(堆)는 물속의 퇴적지형에 대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사퇴(沙堆), 천퇴(淺堆), 주(洲) 등으로 표기하였다. 경기만 대청도 부근의 사주는 대청주(州)로, 기린도 부근의 사주는 기린주(州)로 표시하였으며, 전라남도 낙월도 부근에서는 낙월사퇴(砂堆)로 표시하였고, 경기도 평택과 충청남도 사이의 퇴(堆)는 양쪽지역의 중앙쯤에 위치한다 하여 중앙천퇴(中央淺堆)로 표시하였다.

1907년 수로지에는 육상의 지형지물과 장애물 위주로 표기를 하였다. 표기방법은 간출퇴(干出堆)와 서(巘), 암(岩)으로 표시하였으며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범위에서 표기하였다.

1920년 조선수로지는 퇴(堆)를 사퇴(砂堆)와 주(洲), 천퇴(淺堆)로 표기하였다. 퇴와 주의 위치와 표고는 Table 6과 같다. 대표적으로 일부 사례만 표시하였다.

Table 5. The Location and Characteristic Undersea Features Name ‘reef’

해도 No.	지역	지명	위도	경도	높이
257	거금도	대니퇴	34-26-50	127-14-20	
221B	우이도	우이사퇴	34-29-05	127-54-36	-3.1m
311	소청도	기린주	37-44-45	125-01-30	-2.0m
311	소청도	십이사주	38-04-37	124-41-48	2.0m
311	소청도	중주	37-51-10	124-54-15	1.5m

*m : mud, *m.s : mud sand, *f.s : fine sand,
*s : sand, *g.s : gravel sand

해도 No.	지역	지명	위도	경도	높이
154	동해시	마루초	37-36-13	129-06-41	-18.4m
143	울릉도	쌍정초	37-33-28	130-56-22	-0.6m
254	모슬포	옹포탄	33-10-05	126-17-15	-1.2m
254	모슬포	도농탄	33-09-30	126-16-30	-2.3m
346	대흑산도	금생초	34-39-22	125-22-43	-4.5m

Source : Lim, 2012

Table 6. The Location and Characteristic of Undersea Features Name ‘Bank’

해도 No.	지역	지명	위도	경도	높이
257	거금도	대니퇴	34-26-50	127-14-20	
221B	우이도	우이사퇴	34-29-05	127-54-36	-3.1m
311	소청도	기린주	37-44-45	125-01-30	-2.0m
311	소청도	십이사주	38-04-37	124-41-48	2.0m
311	소청도	중주	37-51-10	124-54-15	1.5m

*m : mud, *m.s : mud sand, *f.s : fine sand,
*s : sand, *g.s : gravel sand

Source : Lim, 2012

5.1.3 탄(灘)

탄(灘)은 해양지명 표준화편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탄(灘)이 사용되고 있는 해역은 도서(島嶼)의 외곽지역으로 항해시 주의가 필요한 험악지와 천소(淺所)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Fig. 3과 같이 제주도 서귀포와 가파도 사이 암석지

3) 심(尋) : 일심(一尋)은 깊이를 나타내는 영어명칭 Fathom(페딕)의 일본식 표기로서 1.8m 즉 양팔을 펼친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fathom 임.

4) 용어예(用語例) : 사용 용어의 분류표로서 영어표기 해양관련 용어를 일본어와 한자로 번역 표기하였다.

대에 과부탄, 광포탄, 옹포탄, 도농탄이 있으며 경기도 용진군 굴업도 인근지역의 연주탄, 선단탄, 장탄, 민어탄, 단탄 등이 있으며 이 해역은 외해에 접하고 있어 다른 해역보다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아 항해에 어려움이 있는 해역으로 탄(灘)의 속성지명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탄(灘)은 만조시에도 항상 수면위에 노출되는 서(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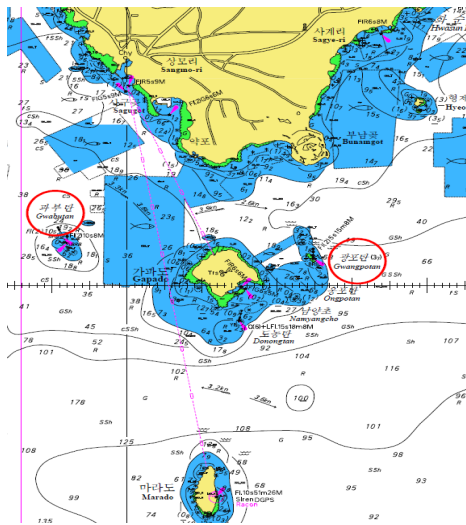


Figure 3. Gwangpotan(Nautical chart No 254 south western part of jeju-do)

5.1.4 퇴(灘)

퇴(灘)는 일본식 표현으로 일본해도 번호W202 장기항(長崎港 : Nagasaki Ko)에는 中ノ瀨 (Naka no se), 남경퇴(南京瀨 : Nankin se), 주퇴(柱瀨 : Hashira se) 등 현재 일본에서 간행되고 있는 해도에 사용되고 있다. 제주도과 추자도 사이에 “중퇴초(中瀨礁)” 육지도 인근 연화도 북쪽과 남쪽에 마퇴(馬瀨)와 북퇴(福瀨)등 퇴(灘)가 사용되고 있다. 이 명칭은 과거 일본해군수로국이 우리나라 연안을 측량하며 주변 수심보다 얕아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명명한 지명으로 판단된다. 퇴(灘)는 초(礁)의 형태로 수면아래 존재하는 항해장애물이다.

기근도(2011)는 퇴(灘)를 “물이 흐르는 하상에서 수직·수평 절리가 일정간격으로 배열된 곳에서 0.5~1m 정도의 단을 이루는 폭포형태”라고 육지지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해저지형에서는 주위보다 수심이 낮아 위험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中ノ瀨는 주위보다 수심이 낮은 지역으로 1902년 수로지에 대흑산도 부근의 “중퇴(中瀨)”와 제주도와 추

자도 사이에 천퇴(淺堆), 또는 암암(暗岩)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1920년 수로지에는 제주도과 추자도 사이에 中ノ瀨와 地ノ瀨로 표기되어 있다. 중퇴와 중퇴초로 표기되어 있는 수는 총 2개이며, Table 7은 중퇴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위치와 수심이다.

Table 7. The Location and Characteristic of Wrongfully-translated Undersea Features Name

해도 No.	지역	지명	위도	경도	높이
248	추자도	중퇴	33-47-50	126-19-20	-4.0m
346	대흑산도	중퇴초	34-42-32	125-24-22	-8.2m

Source : Lim, 2012

5.1.5 암(岩)

암(岩)은 해양지명표준화편람에서 해상지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로 동해연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양지명이다. 경북 경주시 감은사지 앞바다에 일명 “문무대왕릉”으로 부르는 ‘대왕암’과 울산시 울기등대 인근의 ‘대왕암’처럼 만조시에도 항상 수면상에 노출되는 것과 여수해만의 ‘양암’(수심 -9.1m), ‘우암’(수심 -2.2m) 또는 거문도 인근의 ‘양암’(수심 -1.8m)처럼 항상 수면 하에 잠겨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암(岩)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할 것이다.

지명이란 지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적 실체와 인문지리의 실체에 대한 총칭이다.(임영태, 2012) 그러므로 대왕암의 경우처럼 동명을 사용하고 있는 지명은 사물의 고유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성이 있는 지명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5.1.6 서(嶼)

서(嶼)는 육지지명으로서 도(島)와 합쳐서 도서(島嶼)의 뜻으로 크고 작은 섬을 지칭하는 지명이다. 서(嶼)는 만조시에도 항상 물위에 노출되어있는 암석지대를 뜻하는 용어이나 해양지명에서 여(礮, 汝)와 혼용이 되어 사용되고 있다.

서(嶼)는 동해안에서는 발견사례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남쪽과 서쪽 연안에서 암(岩), 서(嶼), 여(礮, 汝)등의 지명과 함께 지형의 존재형태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서(嶼)는 수면상에 항상 노출되어있으므로 표고는 정(正)이다. 서로 표기 되고 있거나 추후 서로 표기해야 하는 수는 총 57개이며, 서로 표기된 것은 15개, 여로 표기된 것은 10개, 초로 표기된 것은 4개, 탄으로 표기된 것은 11개, 암으로 표기된 것은 16개, 취로 표기된 것은 1개이다. 서의 위치와 표고는 Table 8과 같다. 대표적으로 일부 사례만 표시하였다.

Table 8. The Location and Characteristic of Undersea Features Name ‘Islet’

해도 No.	지역	지명	위도	경도	높이
155	속초시	형제암	38-13-45	128-35-45	4.6m
144	울기	대왕암	35-02-28	129-26-43	21m
308	굴업도	장탄	37-07-54	125-59-00	11m
308	굴업도	민어탄	37-07-30	125-55-32	10m
308	덕적도	단탄	37-15-48	126-05-18	10m

Source : Lim, 2012

5.1.7 여(礪, 汝)

여(礪, 汝)도 해양지명표준편람에서 다루어 지지않고 있으나 1907년 조선수로지와 1920년 조선수로지에 나타나는 해양지명이다. 여(礪, 汝)는 1902년(明治 35년) 간행된 조선수로지 후보 1의 지명색인표(p. 14, 25, 27)에서 곡두여암(穀斗汝岩: Kokutojo gan), 주인여암(朱人礪岩: Shinin-yo gan), 탕근여암(湯根汝岩 : Tankun-yo gan)으로 표기되어있으나, 1907년(明治 40년)에는 암(岩)이 삭제되어, 현재의 곡두여(穀斗汝), 주인여(朱人汝), 탕근여(湯根汝)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920년 간행 조선수로지에는 곡두여를 한자어로 曲頭礪와 穀斗汝로, 탕근여는 宍市礪 : 湯根汝로 각각 병기하고 있다. 1952년 수로지에서 곡두여와 탕근여는 병기하여 사용되어왔다.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도 남쪽의 간여암(干汝岩)은 1907년 조선수로지에는 간여암(干礪岩)으로, 1920년 조선수로지에는 간석암(干汝岩)으로 1952년 조선연안남동안수로지에는 현재와 같은 간여암(干汝岩)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礪, 礪, 汝)는 지역에 따라 礪, 礪 또는 汝, 礪岩, 汝岩으로 명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여(礪, 汝)의 사용 실태를 분석하면 Table 3과 같이 1907년에는 rock, nyo가 사용되었으나 1920년 에는 jo, yo로 분류되었다. 이것은 일본해군이 해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명명된 지명으로 판단되며, 이후 정비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전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6. 표준화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양지명은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주변바다를 조사측량하여 해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왜곡되어왔다고 판단 할 수 있겠다.

1907년에는 주로 초(礁), 서(嶼), 여(礪, 汝, 礪) 암(岩) 등의 지명이 사용되었다. 이 지명은 주로 육안으로 관찰과 확인이 가능한 수역에 한정되어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00여년 동안 정비된 사례가 드물고 문헌연구 등 해양지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되어왔던 것으로 향후 해저지형의 존재 형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해저지명으로 명명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 ① 여(礪, 汝)는 해양지명표준화편람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지명이며 서(嶼)와 암(岩)은 지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저지형은 조석의 영향에 따라 위상이 변화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해도 또는 항로지 등 해양관련 문헌에는 서(嶼)와 암(岩)은 해양지명의 범주에서 취급되고 있으므로, 해양지명으로 재분류 하여야 한다.
- ② 해저지형에서 퇴(灘)는 육지의 지형과는 반대로 주위보다 수심이 낮아 항해에 위험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용어의 뜻을 잘못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퇴(灘)의 형상은 초(礁)이므로 초(礁)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 ③ 동명 이물체의 경우 각각의 해양지명을 제정·명명하여야 한다.
- ④ 일본식 한자어의 로마자 표기로 되어있는 외래어의 경우 의미에 맞는 올바른 해양지명으로 변경 고시 하여야 한다.

7. 결론

최근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과 동해표기 문제 등 일본의 도발로 인하여 해양지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지명은 1780년대부터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외국에 의해 측량되어 간행된 해도에 많은 영향을 받아 동일한 해저지형에 대하여 여러 개의 이름으로 표기되는 등 해양지명의 사용에 혼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해도에 표기되어 초(礁), 퇴(灘), 탄(灘), 퇴(灘)등 수중 장애물의 이름과 서(嶼), 여(礪, 汝), 암(岩) 등의 해상지명을 대상으로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해저지명 표준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첫째 항상 수중에 잠겨있는 것은 초(礁)로 분류한다.
- 둘째 만조시 수면위에 나타나는 간출암은 여(礪)로 분류한다.
- 셋째 만조시에도 항상 수면상에 노출되는 1m'이하의 암석은 서(嶼)로 분류하며 size에 따라 서(嶼), 암(岩), 도(島)로 분류하여야 한다.

IHO 해저지명분류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여(礪)와 천퇴(淺堆), 주(洲) 등의 해저지명은 비록 우리가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100여

년 이상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의 경우 이미 고착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양지명표준화 편람에서 국제기준에 병기하여 표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해안 울진, 죽변 인근 해역에서 바닷가의 암석지대를 ‘잠’ 또는 ‘짬’(울진군 홈페이지, 2012)으로 부르고 있는 해양지명에 대하여도 우리의 문화를 이어 나가는 차원에서 발굴되어야 할 해양지명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日本 水路部, 明治40年, 朝鮮水路誌 第 2 改版.
2. 日本 水路部 大正 9年. 日本水路誌 第10券 上, 朝鮮東岸 及 南岸.
3. 日本 水路部 大正 9年. 日本水路誌 第10券 下, 朝鮮西岸.
4. 海上保安廳, 昭和 27年. 朝鮮南東岸水路誌
5. 海軍本部水路官室, 4285年. 韓國沿岸水路誌, 第1券, 東岸 南岸.
6. 海軍本部水路官室, 4285年. 韓國沿岸水路誌, 第2券, 西岸 西海諸島.
7. The United Kingdom Hydrographic Office, Eighth, Edition 2008. Admiralty Sailing Directions, South and East Coasts of Korea, East Coast of Siberia and Sea of Okhotsk Pilot.
8. The United Kingdom Hydrographic Office, Seventh, Edition 2009. Admiralty Sailing Directions, China Sea Pilot V,III.
9. 해양수산부 해양지명위원회, 2004,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10. 국립해양조사원, 2005, 동해중부 해양지명 조사보고서.
11. 국립해양조사원, 2006, 동해 남부, 남해 동부 및 제주도남부 해역 해양지명 조사보고서.
12. 국립해양조사원, 2007, 남해 중부(연안), 황해 및 제주도 부근해양지명 조사보고서.
13. 국립해양조사원, 2010, 동해안항로지.
14. 국립해양조사원, 2008, 남해안항로지.
15. 국립해양조사원, 2009, 서해안항로지.
16. 국립해양조사원, 2010, 해도 번호 155, 속초항 부근의 57종.
17. 기근도, 2011, “백두대간 경상북도 지역의 구곡 문화경관”, 한국지형학회, 제5차 백두대간 역사 문화 지리 지구-백두대간의 지형과 인간 심포지엄 발표 제2부, pp.115-123.
18. 임영태 2005, 해양지명의 표준화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19. 임영태·최윤수·윤하수, 2011, “우리나라 해양지명 표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 Vol. 19 No.6, pp.55-65.
20. 임영태·최윤수·박경·윤하수, 2012, “우리나라 해안 지명에 관한 기본연구”-해안 지명 명명 사례조사 중심으로-한국지도학회지, Vol.12, No.1, pp. 103-111.
21. 임영태 2012, 우리나라 해양지명 특성분석과 표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22. 장학봉, 2004, “해양지명의 의의 및 표준화 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 232호, pp.57-72
23. 최윤수 외, 2003, 해양지명의 전문성과 표준화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임 영 태

2002년 방송통신대 농학과 농학사
2004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2005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
학원 지적정보학과 공학석사

2012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관심분야는 해양지명, 수로측량



최 윤 수

1992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1994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2008년~현재 한국공간정보학회
부회장

2001년~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 공학과 정교수
관심분야는 공간정보 정책, LBS, 해양지명



윤 하 수

2007년 서울시립대학교 지적정보학
공학사
2009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공간
정보공학 공학석사

2011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공간정보공학 박사수료
관심분야는 측량 및 측지, GNSS, 지적